

## 나스닥, 테슬라 급락 여파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쓸림 현상 유입된 일부 기술주 하락

• 미 증시는 지역은행주가 예금 증가 등을 이유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장 초반 상승. 그렇지만, 과도한 상승을 이유로 테슬라(-6.06%)와 알파벳(-3.27%)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발표되자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엔비디아(-3.74%) 등 일부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장 후반 여전히 쓸림 현상은 지속돼 관련 종목 중심으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며 마감(다우 -0.04%, 나스닥 -1.16%, S&P500 -0.45%, 러셀2000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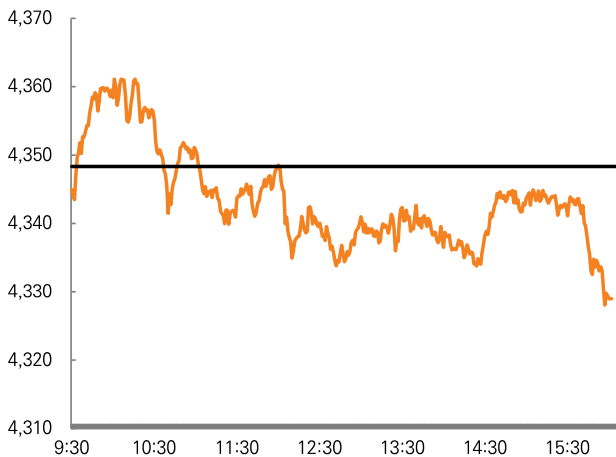
### 특징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부진 Vs. 지역은행, 통신주 강세

• 테슬라(-6.06%)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랠리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알파벳(-3.27%)은 UBS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AI 산업으로의 전환이 단기적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이 여파로 그동안 쓸림 현상이 이어지며 상승했던 엔비디아(-3.74%), AMD(-2.27%), MS(-1.92%), 아마존(-1.55%), 메타(-3.55%) 등도 동반 하락. 컴캐스트(+1.17%)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기 위한 420억 달러 투자 세부 사항을 발표한 후 상승. 팩 웨스트뱅크(+4.01%)와 웨스턴 얼라이언스(+2.14%) 등 대부분 지역은행들은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 MSCI 한국 지수 ETF는 0.93%, MSCI 신흥 지수 ETF는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8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보합.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에서 그동안 쓸림 현상 속에 시장을 견인해왔던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 테슬라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그동안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종목군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독일의 6월 IFO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특히 전일의 특징처럼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매 동향, 선물 시장 동향이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82.20	+0.47	상해종합	3,150.62	-1.48
KOSDAQ	879.50	+0.53	홍콩항셍	18,794.13	-0.51
DOW	33,714.71	-0.04	베트남	1,132.03	+0.23
NASDAQ	13,335.78	-1.16	유로스톡스 50	4,280.57	+0.21
S&P 500	4,328.82	-0.45	영국	7,453.58	-0.11
캐나다	19,587.32	+0.87	독일	15,813.06	-0.11
일본	32,698.81	-0.25	프랑스	7,184.35	+0.2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① 차익 실현 욕구 확대 속 업종 차별화

독일의 6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1.5는 물론, 예상했던 90.7보다 둔화된 88.5로 발표돼 지난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현행지수가 94.8에서 93.7로 위축된 가운데 기대지수가 88.3에서 83.6으로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특히 거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었으며 제조업은 물론, 운송 및 물류 산업의 부정적인 전망이 컸음. 이는 향후 몇 개월 동안 독일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고 있어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

이렇듯 그동안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시장은 2차전지, AI 산업을 비롯한 테마성 재료를 통해 상승을 지속해 왔음. 그렇지만, 최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과도한 상승을 이유로 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뤄지자 지수 하락이 진행. 물론, 지수 하락은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 위주로 나오고 있어 그 외 종목군은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오늘도 시장 하락은 일부 종목에 국한된 모습. 특히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DZ뱅크 등에 이어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랠리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테슬라(-6.06%)가 하락. 여기에 알파벳(-3.27%)도 UBS가 그동안 강세로 상승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AI 산업으로의 전환이 단기적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이 여파로 그동안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상승했던 엔비디아(-3.74%), 메타(-3.55%) 등도 동반 하락.

물론, 통신업종과 일부 통신 장비 업종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기 위한 420억 달러 투자 세부 사항을 발표한 후 상승했으며, 연준 데이터에서 지역은행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팩 웨스트뱅크(+4.01%)가 35억 달러 규모의 특수 금융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고 대부분 지역은행들도 동반 상승. 이렇듯 호재가 유입된 업종은 강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쏠림 현상이 높았던 종목 중심으로는 하락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부담이 높아지며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 기술주 부진 Vs. 통신, 지역은행 강세

테슬라(-6.06%)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밸리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 강화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알파벳(-3.27%)은 UBS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AI 산업으로의 전환이 단기적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이 여파로 그동안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상승했던 엔비디아(-3.74%), AMD(-2.27%), MS(-1.92%), 아마존(-1.55%), 메타(-3.55%) 등도 동반 하락.

컴캐스트(+1.17%), 루멘 테크놀로지스(+9.34%), AT&T(+1.17%)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기 위한 420억 달러 투자 세부 사항을 발표한 후 상승. 팩 웨스트뱅크(+4.01%)는 아레스 매니지먼트(+1.44%)에 35억 달러 규모의 특수 금융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한다고 발표 후 상승. 웨스턴 얼라이언스(+2.14%) 등 대부분 지역은행들도 동반 상승. 연준 데이터에서 지역은행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

루시드모터스(+1.46%)는 영국 고급자동차 제조업체인 아스톤 마틴에게 배터리 시스템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 반납. 모더나(+1.61%)는 UBS가 여타 백신 업체들에 비해 저평가 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 반면, 화이자(-3.68%)는 간 손상을 이유로 비만 및 당뇨병 약물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J&J(-1.12%)는 RSI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과매수된 종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55	대형 가치주 ETF (IVE)	+0.09
클린테크 ETF (CTEC)	-0.07	중형 가치주 ETF (IWS)	+0.79
소매업체 ETF (XLY)	-1.28	소형 가치주 ETF (IWN)	+0.41
온라인소매 ETF (EBIZ)	-0.39	대형 성장주 ETF (VUG)	-1.13
미국 인프라 ETF (PAVE)	+1.003	중형 성장주 ETF (IWP)	+0.15
핀테크 ETF (FINX)	-0.24	소형 성장주 ETF (IWO)	-0.1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0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78
클라우드 ETF (CLOU)	-1.0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7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28	미국 국채 ETF (IEF)	+0.2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38	하이일드 ETF (JNK)	+0.19
바이오섹터 ETF (IBB)	-1.11	신흥국 채권 ETF (EMBD)	+0.34
로봇&AI ETF (BOTZ)	-0.64	물가연동채 ETF (TIP)	+0.05
반도체 ETF (SMH)	-0.4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1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부동산	230.40	+2.21	-1.91	+3.00
에너지	605.37	+1.71	-1.79	+0.47
소재	507.06	+1.00	-0.98	+5.81
유틸리티	333.75	+0.98	-1.63	+2.33
산업재	881.18	+0.79	-0.87	+6.12
필수소비재	774.79	+0.03	-0.41	+1.30
금융	543.63	-0.28	-2.30	+2.03
헬스케어	1,530.70	-0.60	-0.36	+3.17
IT	2,967.11	-1.03	-3.05	+1.96
경기소비재	1,282.20	-1.25	-1.27	+7.75
커뮤니케이션	211.23	-1.88	-2.62	+0.1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차익 실현 매물과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93%, MSCI 신흥 지수 ETF는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3.8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포함.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1만계약 가까운 대규모 선물 매수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상승. 반면, 외국인이 150억원 순매수 했으나 삼성전자를 2,487억원 순매수해 여전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을 주며 상승은 제한. 결국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와 대규모 선물 매수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등 수급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며 KOSPI는 0.47%, KOSDAQ은 0.53%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그동안 쏠림 현상 속에 시장을 견인해왔던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 테슬라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그동안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종목군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

물론, 엔비디아(-3.74%)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크게 하락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반도체 장비 업종을 비롯해 여타 반도체 종목군은 여전히 이어진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 하반기 업황 개선 등을 이유로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6% 상승한 점은 긍정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특히 독일의 6월 IFO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으나, 여타 종목군은 매도하고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특히 전일의 특징처럼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매 동향, 선물 시장 동향이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독일 기업 환경지수 둔화 지속

독일 6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1.5는 물론, 예상했던 90.7보다 둔화된 88.5로 발표돼 지난 12월 이후 최저치. 현행지수는 94.8에서 93.7로 위축된 가운데 기대지수가 88.3에서 83.6으로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6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29.1보다 개선된 -23.2로 발표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위축된 심리는 지속. 특히 생산지수가 -1.3에서 -4.2로 위축되는 등 사업여건의 악화가 지속.



## 국제유가, 러시아 불안 불구 상승 제한

국제유가는 러시아 반란이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다만, 이번 사태가 결국은 향후 러시아 원유 공급 증가와 감소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심리는 여전. 미국 천연가스는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에어컨 관련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지속. 유럽 천연가스는 러시아 반란 소식 등을 지켜보며 보험권 등락.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ECB 포럼에서의 라가르드 총재 발언을 앞두고 달러 대비 강세. 엔화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42% 약세를 보였으나,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은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 진행.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경제를 알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파월 등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소폭 하락.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특히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인 2.63배를 상회한 2.86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인 58.8%를 상회한 68.5%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았다는 점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금은 달러 약세 및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 매물 출회되며 하락. 곡물은 밀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사일로 위치 지역을 점령하고 이로써 흑해로의 곡물 수송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대두는 일부 작황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에 작황 부진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옥수수도 동반 상승하다 매물 출회되며 보험 마감.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8%, 철근은 0.58%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37	+0.56	-3.31	Dollar Index	102.778	-0.12	+0.25
브렌트유	74.18	+0.65	-2.31	EUR/USD	1.0905	+0.10	-0.15
천연가스	2.79	+1.76	+5.51	USD/JPY	143.51	-0.13	+1.08
금	1,933.80	+0.18	-1.94	GBP/USD	1.2712	-0.02	-0.63
은	23.02	+2.11	-5.40	USD/CHF	0.8957	-0.14	0.00
알루미늄	2,148.50	-1.20	-4.13	AUD/USD	0.6676	-0.06	-2.55
전기동	8,391.00	+0.01	-1.74	USD/CAD	1.3156	-0.20	-0.41
아연	2,328.00	-1.54	-4.47	USD/RUB	84.4853	+0.04	+0.60
옥수수	588.25	0.00	-1.59	USD/BRL	4.7670	-0.37	-0.22
밀	738.25	-1.41	+4.92	USD/CNH	7.2462	+0.42	+1.15
대두	1,323.00	+0.97	-1.45	USD/KRW	1,306.30	+0.16	+1.90
커피	165.15	+0.18	-8.63	USD/KRW NDF1M	1,303.82	-0.28	+1.8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719	-1.55	-4.21	스페인	3.277	-3.60	-16.60
한국	3.607	-6.30	-2.80	포르투갈	3.004	-3.90	-15.60
일본	0.361	-0.80	-3.90	그리스	3.545	-5.80	-27.50
독일	2.309	-4.40	-20.80	이탈리아	3.950	-2.90	-17.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